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9. 10.(목)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 디지털 도로팀	담당 자	• 팀장 이성민, 사무관 장유진, 주무관 이길재 • ☎ (044) 201-3928,2935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11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1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토부, 지능형교통체계(ITS)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

- 강릉시 등 44개 지자체 디지털도로망 구축에 1,390억 원 지원
-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(C-ITS) 구축도 본사업으로 본격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'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(ITS)\*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(C-ITS)\*\* 국고보조사업'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하였다.

- \* 지능형교통체계(ITS,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 :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·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·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
- \*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(C-ITS,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 : 자동차-자동차, 또는 자동차-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안전·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통시스템

- 국토교통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,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.
-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,390억 원을 지원하여 교통관리, 신호운영, 안전지원 개선 및 C-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.

\* 지자체는 국비 매칭비율(40%~60%)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%~40%를 부담

□ 지난 7월부터 한 달간(7.28~8.26) 사업공모를 진행한 결과, 총 49곳 광역·기초 지자체가 지원하였고, 평가위원회의 평가\* 결과 광역 지자체 6곳,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되었다.

\* 지자체별 교통 현황분석, 사업구간 및 서비스 적정성, 자원조달방안 등 평가

○ 특히, 그동안은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하였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(C-ITS)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'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### 《 지자체별 ITS 서비스 사업계획 우수 사례 》

#### ① 기본교통정보관리 (강릉시)

- 강릉시 전역의 교통정보관리를 통한 공공 ↔ 민간 교통정보활용 선순환구조 마련으로 정보정확도 향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
- 26년 ITS 세계총회 시연지원 등 활용예정



#### ② 사고 및 안전관리 (안양시)

- 인공지능 CCTV 기술기반으로 차량 위치, 속도, 보행자 움직임 등을 전광판에 표출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에게 경각심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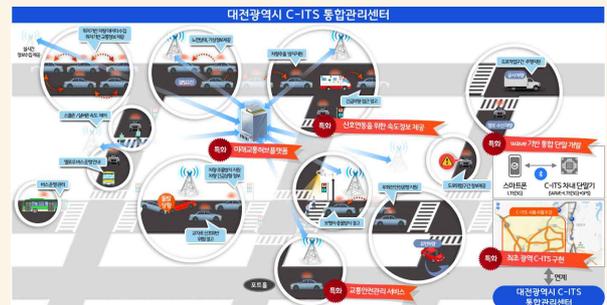
#### ③ 통합주차정보시스템 (남양주시)

- 공영 및 민간주차장까지 수집·제공범위를 확대한 통합 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차요금 결제 및 자동감면서비스 등의 통합주차정보제공 플랫폼 구축
- 스마트주차정보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



#### ④ C-ITS (대전광역시)

- 국내 최초 ITS 도입 및 고도화를 진행해온 도시로, C-ITS로 안전한 대전 조성,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및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
- 신호연동 속도정보제공, 모바일 기기연계 활용 등 지역특화 서비스 구축예정



-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(2021년 1월)에 교부할 예정이며,
  - 2025년까지 매년 약 1,800억 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지능형교통체계(ITS)를 통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 - “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분야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,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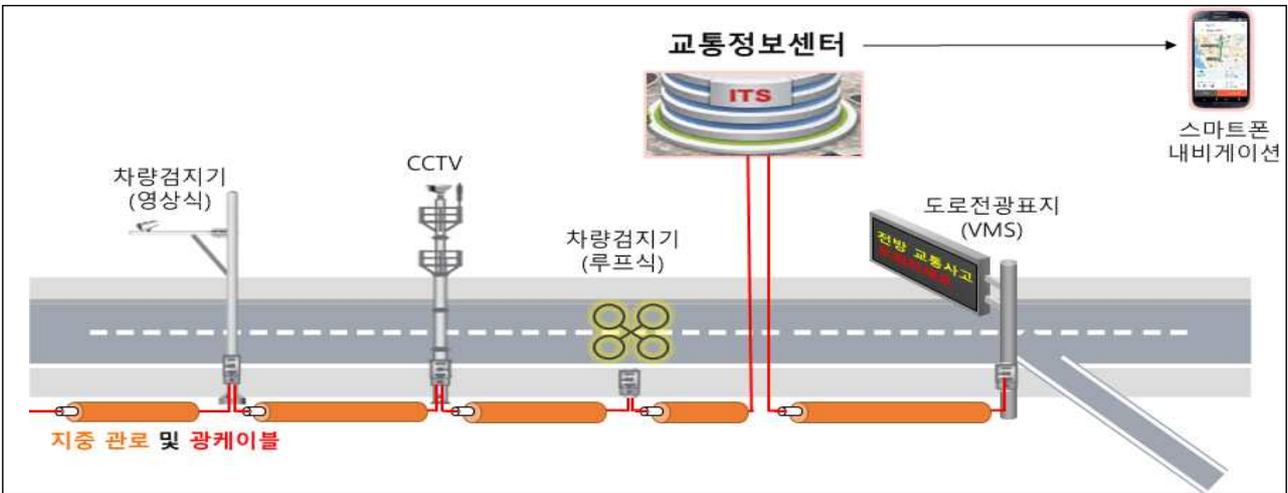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팀 장유진 사무관(☎ 044-201-3928), 이길재 주무관(☎ 044-201-39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

# 참고 1

## ITS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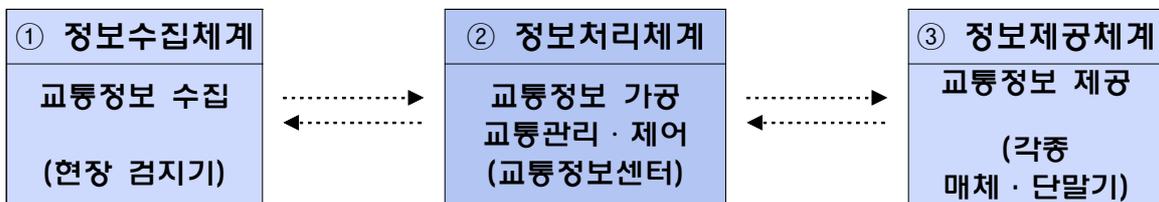
### □ ITS 개요 (ITS :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

- (정의)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·제공하여, 교통소통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
  - 교통수단·도로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, 교통분산, 신호운영 등을 통한 교통제어로 혼잡 완화 등 교통체계 최적화 가능
- (구성요소) 현장 검지기, CCTV, 도로전광 표지판, 하이패스 단말기 및 기지국, 신호등, 차로제어시스템, 교통센터 등으로 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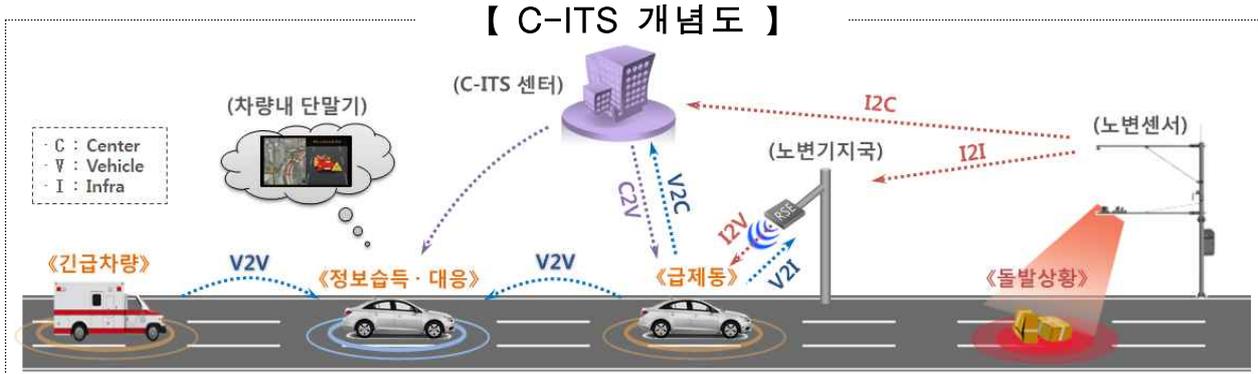
- (운영체계) 정보수집, 정보 가공·처리, 정보제공의 3단계로 구성

### < ITS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 및 운영 흐름 >



- \* ① 차량검지기(VDS), 하이패스 단말기 + DSRC, 영상검지기(AVI)
- \* ②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,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,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등
- \* ③ 스마트폰,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교통정보서비스, 도로전광표지판, 버스안내정보기

□ C-ITS 개요



- (개념) C-ITS는 자동차가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도입
- (주요시스템) 車內단말기·노변기지국(통신), 신호제어기(교통신호), 돌발상황 검지기(도로변 교통상황), 인증서 기반 보안시스템 등 구성
- (운영) 차량이 인프라, 다른 차량과 통신을 통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,
  - ①데이터 취득, ②통신을 통한 정보전달, ③활용 단계로 구성
- (취득) 인프라\*를 통해 차량 주행정보, 교통정보 등의 정보를 수집
  - \*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취득하고, 추돌사고, 악천후,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을 노변센서로 검지 및 차내 설치된 단말기·GPS를 통해 차량 주행정보 수집
- (전달) '차량↔사물(V2X)' 통신기술을 통해 취득된 정보를 전달하며, 무선랜 기반의 통신기술과 휴대폰 기반의 통신기술이 경쟁 중
  - \* 무선랜 기술기반 WAVE는 표준수립·제품개발·실도로검증 등 상용화 완료, 휴대폰 통신기술 기반인 LTE-V2X는 표준수립 후 제품개발 단계
- (활용) 車內 단말기를 통해 안전정보를 표출(일반차)하고, 단말장치 또는 C-ITS센터에서 가공한 정보를 자율주행 시에 활용(자율차)

### 참고 3

### 지자체 ITS 국고지원 사업 선정 지역

- (특광역시, 6곳) 서울특별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대전광역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
- (기초단체, 38곳) 경기도(고양시, 광명시, 군포시, 남양주시, 김포시, 구리시, 이천시, 부천시, 시흥시, 안양시, 의왕시, 하남시, 파주시, 평택시, 화성시, 용인시, 안성시, 성남시, 과천시), 강원도(원주시, 강릉시), 충청남도(아산시, 천안시), 충청북도(청주시, 제천시), 전라북도(익산시, 완주군, 전주시, 김제시), 전라남도(순천시, 광양시), 경상남도(창원시, 김해시, 양산시, 진주시), 경상북도(경주시, 포항시, 구미시)